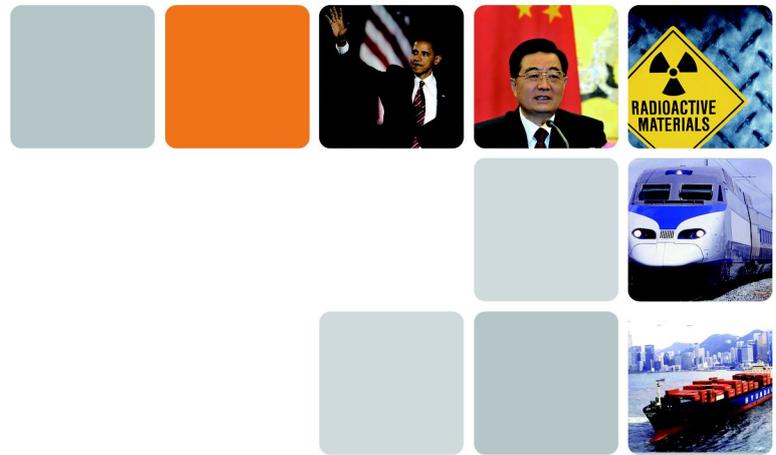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1.01.17 (통권332호)



## 경제이슈

美 생산자물가, 6개월째 상승세 지속  
12월 수출입 물가상승

## 경영노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형과 함정

## 사회 트렌드

지난해 e메일 전송 18억 명이 107조 건  
미국이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 저널 브리프

2011년 7대 주거 트렌드

## 洗心錄

하루 중 98%는 내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다

□ 美 생산자물가, 6개월째 상승세 지속

- 미국 노동부(13일)에 따르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대비 1.1% 상승하며 7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 유지
  - PPI 변화 추이 :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1% 상승하여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상승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 추세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 식품가격은 전월대비 0.8%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3.7%의 높은 상승폭을 보임
  - 근원 PPI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평년 수준을 유지
- 최근 미국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난방유 수요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에 기인하였으며 근원 PPI 상승폭은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미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

□ 12월 수출입 물가 상승

- 12월 수출입 물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입물가는 2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수출물가 :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올라 전월 대비 3.1%(전년동월대비 4.3%) 상승
  - 부문별 수출물가 : 공산품은 석유화학·고무제품, 1차금속 및 전기장비 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3.1% 상승,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2.3% 상승
  - 수입물가 : 원유, 동, 니켈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전월 대비 4.7%(전년동월대비 12.7%) 상승
  - 부문별 수입물가 : 광산품이 원유 액화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천연고무 밀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대비 6.7% 상승
- 수입물가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산품, 서비스 및 공공요금에 상당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

□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형과 함정<sup>1)</sup>

- 환경 변화 및 정보량 증가가 가속화되고 상품 가치의 급변, 상품의 손쉬운 모방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더욱 중요해짐
  -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서임
  - 하지만 혁신을 시도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에 맞는 혁신 유형을 선택하고 실패로 이끄는 함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
-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가치제안 혁신, 운영모델 혁신,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의 사업구조 혁신이 있음

< 비즈니스 모델 혁신 유형별 사례 >

	내 용
가치제안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서비스) 저가 경쟁이 치열한 트럭 시장에서 벤츠는 제품 판매 외에 운행 거리 당 지불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을 추가한 상품을 개발</li> <li>●(상품→경험) 애플은 제품 자체보다 온·오프라인(애플스토어, 아이튠즈, 앱스토어)에서 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의 연속적인 제품 경험을 제공</li> </ul>
운영모델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비용 모델) 타타는 하청업체 부품을 받아 조립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 하청업체 부품을 보내 조립·판매하는 혁신을 통해 저가 자동차를 개발</li> <li>●(멀티 브랜드) 오티스는 중국 시장의 업체 인수와 조인트 벤처 설립, 다양한 가격과 가치를 제안하는 하위 브랜드들의 운영을 통해 점유율 상승</li> </ul>
사업구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소스) 광고로 주요 수익을 얻는 페이스북은 코드 개방과 타사의 활용 유를 통해 방문자를 증가시키고 수익 대비 고정비용을 감소시킴</li> <li>●(사업영역 확장)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러시아에서 매장 개설 후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목격하고 매장 개설, 쇼핑몰 개발·운영을 동시에 진행</li> </ul>

-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은 한 가지의 확실한 혁신에 집중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음
  - 너무 많은 혁신 프로젝트를 시도하거나 프로젝트들이 중복되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혁신의 확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에 집착하거나 조직 내부의 요구에 맞추느라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혁신은 지속될 수 없음

1) 본 자료는 ‘과거 아이디어의 덩어리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동아 비즈니스 리뷰, 2011. 1)’를 요약 정리함

## :: 사회 트렌드

---

### □ 지난해 e메일 전송 18억 명이 107조 件<sup>2)</sup>

-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e메일 이용자 18.8억 명이 총 107조 건의 e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됨(첨단기술모니터링사이트 로열핑덤의 발표)
  - 그러나 e메일의 89.1%가 스팸메일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세계 e메일 이용자 18.8억 명 중 4.8억 명이 지난해 새로 e메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 e메일 계정 수는 총 29억 개로 나타났고, 이들 중 법인 명의로 된 것이 전체의 25%를 차지
- SNS 이용도 빠르게 증가
  - 지난해 트위터에서는 1억 7,500만 명의 이용자가 250억 건의 ‘트위트’를 전송했고 50억 장의 사진파일을 올림

### □ 미국이 위협국으로 생각하는 국가는?<sup>3)</sup>

-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세계 최고 경제파워로 꼽힘
  - 세계를 이끄는 경제파워를 묻는 질문에 47%가 중국을 꼽아 미국이라고 답한 응답자(31%)를 넘어섬
  - 일본은 9%, EU는 6%를 차지
-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높았지만 또한 최대 위협존재로 바라보고 있음
  - 어느 나라 뉴스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는 질문에 중국(41%)이 가장 높았고, 정통적인 우방인 영국은 17%에 불과했고, 독일(11%), 이탈리아(11%), 프랑스(6%)로 나타남
  -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 20%가 중국을 꼽아 북한(18%), 이란(12%), 아프가니스탄(10%)을 넘어섬
  - 하지만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우려는 군사적 위협(20%)보다는 경제적 위협(60%)인 것으로 나타남
- 세계를 이끄는 경제파워를 묻는 질문에 47%가 중국을 꼽아 미국이라고 답한 응답자(31%)를 넘어섬

2) “지난해 e메일 전송 18억 명이 107조 건”(문화일보 2011.1.14) 참조

3) “‘中, 경제파워 1위’ 미국인 47% 응답”(문화일보 2011.1.14) 참조

□ 2011년 7대 주거 트렌드<sup>4)</sup>

■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주거 트렌드가 예상되고 있음

- ① **4G(Gold)족 부상:** 2011년에는 주거공간의 새로운 VIP인 골드 미스앤 미스터, 골드시니어, 골드 키드, 골드 포리너(외국인) 등 각기 다른 네 부류의 골드족 수요가 주거시장의 주도 계층으로 부상할 전망
- ② **자급자족형 주거시설 확산:** 친환경, DIY(Do-It-Yourself) 등이 이슈가 되면서 아파트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하 주차장이나 공용시설에 식물 공장을 설치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자급자족형 주거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③ **강소주택의 탄생:** 1인 가구의 증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영향으로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에 따라 맞춤형, 고급화로 새롭게 태어난 강소주택이 등장할 것
- ④ **저층의 재발견:** 통상적으로 저층 주택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으나 아파트 앞 공터를 활용하여 정원이나 별채를 설치하는 등, 저층 주택의 변신이 이루어지면서 저층주택이 재조명을 받을 것
- ⑤ **시니어 전용 주택의 출현:** 노인끼리 모여 사는 것을 거부하고 젊게 생활하려는 ‘젊은 시니어 층’이 기존에 살던 주택이나 동네에서 계속 사는 현상에서 착안, 고령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계된 주택이 속속 선보일 전망
- ⑥ **생활한옥의 등장:** 한옥 확산의 바람을 타고 전통 한옥의 단점은 보완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가미한 도시형 생활한옥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
- ⑦ **주거 소셜커머스 시대 개막:** 직업이 같거나 애완동물 기르기 등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택이나 주택관련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주거 소셜커머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

---

4) “내년엔 집도 공동구매? 2011년 주거공간 트렌드”(헤럴드경제, 2010.12.07) 참조

□ 하루 중 98%는 내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다

심리학자 새드 험스테터에 따르면 통상 사람들은 하루에 깊이 자는 시간을 빼고 20시간 동안 5~6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한 시간이면 2,500가지, 1분에도 42가지 생각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생각의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점이다. 스스로의 의식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후회와 비탄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래서 긍정이 중요하다. 긍정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긍정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위다. NBA의 유명 농구감독인 릭 피티노는 ‘나는 하루 중 98%는 내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2%는 어떻게 하면 매사에 긍정적이 될 수 있을까 궁리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기계와 달리 감정에 크게 좌우된다. 구성원 모두가 힘들어 하고 지쳐 있을 때일수록, 리더의 긍정적 태도, 자신감 있는 행동, 낙관적 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구성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훈련시켜 긍정을 습관화시킬 수 있을까? GE 헬스케어 아시아의 이채욱 前사장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의 좋은 점이 뭔지를 메모한다고 한다. 그는 그것을 ‘백지와의 대화’라고 부른다. 백지위에 좋은 점을 나열하다보면 더 좋은 점이 나오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일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솟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된다고 한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다.

긍정의 습관화는 한 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3,000번 이상 세뇌할 때 긍정의 의식화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긍정은 천성이 아니라 후천의 의식적인 행동이다. 긍정은 마이너스 사고에서 플러스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유머감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조약돌마다 삐걱거린다.**

- 헨리 와드비처 -